

협회소식\_kira news

**우리협회 제26대 이철호 회장 취임**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4일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철호(李哲昊/66세/주. 승창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회원을 제2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4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센트로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우리협회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시도회장 및 전임, 신임 이사 등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하고, 2년 임기의 업무를 시작했다.



〈이철호 신임회장 약력〉

- 1940년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 정보통신부 건축심의위원
- (주)승창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우리협회 신사옥 기공식 개최**

지난 3월 4일 이철호 회장의 취임식이 있은 후 곧바로 우리협회 신사옥 공사 현장(서울 서초동 1603-55)에서 역대 회장과 임원, 회관건립위원회 위원, 설계를 맡은 오근석(유진인테리어건축사사무소)건축사, 시공을 맡은 남흥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협회 신사옥은 2006년 7월 즈음 완공될 예정이다.



기공식 광경



이 · 취임식 광경

## 「국제화시대에 맞는 건축사업무와 대가의 제도화방안」 토론회 개최

### 건축의 공공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대가기준 반드시 필요

우리협회는 협회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3월 15일 서울 태평로 프레젠테이션에서 「국제화시대에 맞는 건축사업무와 대가의 제도화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철호 우리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일반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바이에 대한 건축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영철 건축사우리협회 협회발전위원장, 제1과제: 건축계의 현실인식과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제고), 한명수 건축사우리협회 이사, 제2과제: 건축사업무대가기준과 건축계의 현실, 김광현 교수(대한건축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교수, 제3과제: 국제화시대에 미래지향적인 전략의 주제발표에 이어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제도법무과 사무관), 송길수(건설교통부 건축과 사무관), 김천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토론회자가 참여한 가운데 여러 회원과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며 심층적인 토론회가 이뤄졌다.

우리협회 강성익 협회발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좌장으로 박경립 강원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이철호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건축사용역의범위와 대가기준"은 사회적으로 건축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하고, "오늘의 토론회가 희망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을 보면,

제1과제 주제발표에 나선 전영철 건축사는 "건축사 1인당 평균 설계수수료는 지난 2003년 92평(월)에서 지난 해 76평(월)으로 줄었으며, 이는 현재 5%를 차지하는 대형 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사무소들의 수수료 현실"이라고 말하고, "시장에서는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덤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는 수수료 업체가 이미 손해 본 가격을 최소화하려는 영업 전략으로

이어져 설계, 감리 부실을 양산하고 건축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편의주의에 기초해 실적 위주로 운영돼 연간 1천여명 가까이 배출되는 새내기 건축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현행 적격심사제와 인정기술자제도, 설계입찰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명수 우리협회 이사는 "현재 국내 건축사업계가 나홀로 건축사나 면허 대여자처럼 소규모,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원가계산이 가능한 판단기준이



토론회 광경

있어야만 국내 건축사업계가 압박해 온 건축설계 시장 개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부활된 노력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명분과 실의, 기대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공정거래라는 잣대로 건축사업무 대가기준이 사라진다면 국가와 후진들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이는 단순히 건축사들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김광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설계비를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바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 일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검토"를 지적하고, "현재 대부분의 사무소가 대가없이 봉사하는 상황으로 이것이 건축사의 직능저하 및 건축설계의 전문성을

경시하게 만들어 사무소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교수는 "건축설계의 국제화는 물론 건축사의 업역과 관련해 전문화와 업무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건축사사무소의 전공제」를 제안하고, 국가공인기술자로서의 건축사가 당연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으로 「등급별 기준설계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문제해결의 근간은 「건축의 공공성」에 기초해야 하며, 이 문제는 전문가집단의 보수에 관한 좁은 문제가 아니라 건축계 전체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제도법무과 사무관은 "건축사업무대가 기준 폐지추진에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여 카르텔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56개 관련 기준이 이에 해당하며, 건축사업무대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공정위의 기본 입장을 표명했다. 또 송길수 건설교통부 건축과 사무관은 "정부방침으로 확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폐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을 말하고, "대가기준이 폐지되면 별도 이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협회나 건축관련 단체에서 시장 경쟁성에 맡기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으며, 이와 함께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교통, 환경, 건축의 기준은 꼭 필요한 것으로 최종 소비자인 사용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해당부처의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감하고 협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협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www.kira.or.kr](http://www.kira.or.kr) 참조)

##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 「건설업체 건축설계업 참여 허용방안」반대 결의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4일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재적대의원 448명중 403명의 성원을 보인 가운데, 정관 개정(안)을 비롯한 7개의 안건이 상정·처리되었다. 제1호안인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고, 나머지 5개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최대 관심사였던 제7호의안 '임원 개선의 건'에서는 이철호 회원(주. 송평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이 제 26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감사에는 송평문 회원(주.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이 선출되었다. 이사 8인에 대한 선출은 대의원들의 신임 회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신임회장에게 위임되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 허용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명옥 대의원의 선창과 함께 전 대의원 일동이 후창하며 강력히 이를 펼치, 반대하고 그 의지를 결의하였다. 아울러 차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의미로 신임 이철호 회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부의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부결됨
- 제2호의안 : 200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일반회계의 세출(집행)액 2,732,463,559원

(2004세입세출예산 3,605,000,000원)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의 건
  - 일반회계의 2004년 예산(3,605,000,000원)보다 5.0%(181,000,000원) 감소한 3,424,000,00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회관건립계획 변경 승인의 건
  - 당초 계획된 회관건립계획을 지하 4층, 지상 8층 3,365.03평(11,124.13㎡)의 연면적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당초 9,300,000,000원에서 968,939,000원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시·도 건축사회 대여금 상환기준 변경에 관한 건
  - 미상환한 대여금과 정상이자를 2005년 상반기(05. 6. 30)까지 상환하는 건축사회에 한하여 연체이자와 지연배상금을 면제하는 건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의 징계에 관한 건
  - 우리협회 정회원회비를 5년(60개월)이상 장기미납한 회원에 대해 제명하는 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1인) : 이철호 회원
  - 이사(8인) : 신임회장에게 위임
  - 감사(1인) : 송평문 회원

### 결 의 문

우리 건축사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시명감을 가지고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의 공공성 확보 및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에 동참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축설계·감리분야의 전문성과 왜곡된 시장질서는 외면한 채 탁상공론으로 "건설업체의 설계검업 허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6만 여 명의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 설계·감리분야 종사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처사를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하나, 정부는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건축 설계시장을 왜곡하고 설계수주 질서를 일시에 붕괴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몇몇 대형 건설업체에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주려는 불공정한 처사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건축사자격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기술분야 전문화 육성정책에도 역행되는 "설계검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중지하라.

하나, 정부는 건축물의 불법·부실 예방을 위하여 설계와 시공이 상호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분야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축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05. 2. 24

대한건축사협회 전국 대의원 일동

### 〈신임이사〉



강석후(姜錫厚)  
생년월일: 58년생  
출신교: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사무소명: 수림 건축사사무소



김화자(金花子)  
생년월일: 44년생  
출신교: 영남대학교 건축과,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사무소명: 건축사사무소 세명건축



이근청(李根鼎)  
생년월일: 49년생  
출신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대학교 제1기 건설최고경영자과정  
사무소명: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양원(李洋遠)  
생년월일: 49년생  
출신교: 부산공업고등전문대학교(현 부경대학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무소명: 이양원 건축사사무소



이영수(李英洙)(유임)  
생년월일: 52년생  
출신교: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건축대학원 MARch  
사무소명: (주)건축환경그룹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명순(李秉淳)  
생년월일: 46년생  
출신교: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한남대학교 대학원 도시설계학  
사무소명: 영 건축사사무소



장기중(張奇鍾)  
생년월일: 52년생  
출신교: 전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사무소명: 장 건축사사무소



장안순(張亮淳)  
생년월일: 46년생  
출신교: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과  
사무소명: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 〈신임감사〉



송평문(宋平文)  
생년월일: 47년생  
출신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사무소명: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총회광경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2005년도 정기총회 개최

부산영상센터국제공모전 등 10여개 단위행사 기획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부산시청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건축문화제가 총 17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와 비교 3배 정도 확대 기획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 등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제5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에코포트 부산-아시아·태평양의 관문(Eco-Port, Busan - The Gate of Asia-Pacific)'이라는 주제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데, '2005 APEC' 개최를 계기로 해양도시 부산을 친환경 건축문화의 도시로 가꾸어 세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건축문화제는 '부산영상센터 공모전', '중구시범가로정비 국제공모전',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 '전국건축사대회', '국제건축워크숍', '국제건축심포지엄', '건축작품전', '시민건축대학', '조인트아트전', '건축모형제작전' 등 10여개의 단위행사가 열리며, 이 중 '부산영상센터 공모전'과 '중구시범가로정비 국제공모전'은 지난해 조직위가 밝힌 바와 같이 실질적인 건축·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의 도시환경을 변화시키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 문화제에서 처음으로 기획된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BIFEA)'는 돌, 나무, 흙 등을 소재로 전 세계 친환경자재업체가 참가해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 조성 및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국 5천여 명의 건축사가 참가하는 대한건축사협회의 「2005전국건축사대회」가 연계되어 올해 문화제에는 약 1만여 명의 국내·외 건축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는 '시민건축대학', '건축모형전', '조인트아트전'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건축계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도 대폭 커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산다운 건축상을 비롯해 부산건축

대전, 실내건축대전, 대학생우수작품전 등 예년과 같은 기존 행사들이 마련된다. 더불어 이날 총회에서는 조직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도시건축문화관 건립과 건축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문의 : 문화제 사무국

051-888-4760, www.biacf.org

## 제27회 한국건축가협회상 및 특별상 수상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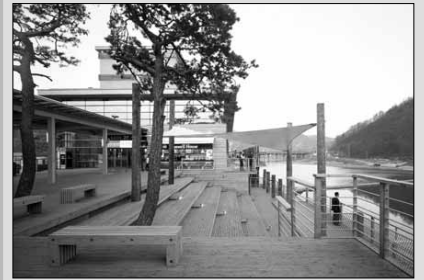
지난 2월 21일 한국건축가협회는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27회 한국건축가협회상 및 특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한국건축가협회상에는 모두 60여 편의 신청작품 중 26점이 예심을 통과했으며, 현장답사를 통해 최종 7작품, 금강휴게소-인의식+장명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다락원-임상관+민준기(주.테트라건축사사무소), 도시형대안학교 이우중고등학교-김승희+강원필(주.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리움-박승+Mario Botta+Rem Koolhaas+Jean Nouvel(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이원아트빌리지-원대연(홍익대 건축과 대학원 겸임교수), 카메라타 황인용 음악스튜디오-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 MOA갤러리+시경당-우경국(주.에코아트스페이스건축)이 선정됐다.

특별상에 해당하는 엄덕문건축상은 최문규(가이건축사사무소)씨와 아천건축상은 배병길(배병길건축연구소)씨가 각각 수상했다.

원정수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작년 한 해의 수확에 대해 대형프로젝트보다 중소형 규모에 많은 비중이 있었지만 작품의 수와 질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였다"며 "예전에는 흐름에 동조하는 작품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각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금강휴게소 / 인의식+장명희(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다락원 / 임상관+민준기(주.테트라건축사사무소)



도시형대안학교 이우중고등학교 / 김승희+강원필(주.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리움 / 박승 + Mario Botta + Jean Nouvel + Rem Koolhaas (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이원아트빌리지 / 원대연(홍익대학교 건축과 대학원)



카메라타 황인용음악스튜디오 / 조병수(조병수 건축연구소)



MOA갤러리+시경당 / 우경국(주, 예공 아트스페이스 건축)



특별상\_ 엄덕문 건축상 / 최문규(주, 가야건축사사무소)



특별상\_ 아천 건축상 / 배병길(배병길 건축연구소)

## 제2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

도코모모 코리아는 최근 들어 경북 동편에 위치한 국군기무사령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곳을 미술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미술계로부터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를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전개시키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대안 제시를 이끄는 일환으로, 기무사령부 부지를 계획 대상지로 정해 이곳의 시간성과 장소성의 가치가 문화예술 마당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건축계의 제안을 모으는 디자인공모전을 마련했다.

- 주제 : 시간\_비움 vs 채움

군기무사령부(옛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의 현대미술/문화공간 활용계획

- 공모일정

• 접수 : 3월 14일~4월 15일

• 워크숍 : 3월 16일 오후 2시(장소 : 경북궁 내 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 예정), 마리스텔라 카시아타(도코모모 인터내셔널 회장) 특강 병행

• 일정 : 1차마감 및 결과발표 - 5월 27일 (직접제출) / 5월 31일

2차마감 - 6월 24일(1차 통과작에 한함 / 직접제출)

- 당선작발표 : 6월 28일

- 입상작전시 : 6월 28일~7월 10일

- 참가자격 : 2년제 이상 건축/도시 관련학과 전공자

- 참가비 : 1팀 당 5만원(팀당 제한인원 : 3인 이내)

- 응모작품 제출내용

• 1차마감 : A1규격 3장 이내 응모안 CD 및 출력물(A3크기 5부) 제출.

• 2차마감 : A1 실제 규격 3장 이내 패널 (10mm 우드보드 부착), 모형(제출은 임의, 단 제출할 경우 모형의 장변길이가 A1 장 변길이를 초과하지 말 것)

- 시상 :

• 대상(1점, 문화재청장상) : 상금 5백만원

• 최우수상(1점, 도코모모코리아 회장상) : 상금 2백만원

• 우수상(2점) : 상금 각 1백만원

• 특선 및 입선 : 다수

문의 : DOCOMOMO Korea 02-709-2539, <http://www.docomomo-korea.org>



## 제1회 정림학생건축상

정림건축아카데미에서 제1회 정림학생건축상을 개최한다. 이 상은 「세계화하는 한국성 건축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국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현대건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한국성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국제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는다. 앞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 참가자격 : 국내외 2·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1인 1작)

- 참가접수 : 2005년 6월 27일~7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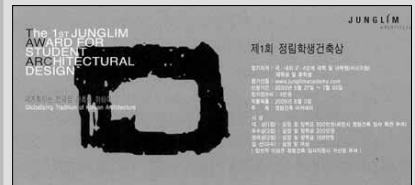
- 작품접수 : 2005년 8월 3일까지

- 시상내용 : 대상(1점)/상장 및 장학금 5백만원  
우수상(2점)/상장 및 장학금 2백만원

장려상(2점)/상장 및 장학금 1백만원

입선작(다수)/상장 및 부상

- 참고 : [www.junglimacademy.com](http://www.junglimacademy.com)



## 2005 생태건축아카데미 모집

생태건축연구소와 숲 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되는 '2005생태건축아카데미' 강사는 생태건축의 국제적 흐름과 진행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생태적 건축을 정착하고자 마련됐다. 이 강

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아카데미 지정교육장(서울)과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수강료는 120만원

- 강사진 : 이윤하(생태건축연구소 대표), 이태구(세명대), 이승복(연세대), 김현수(건설기술연구원), 성종상(서울대), 윤중호(한밭대), 이정재(동아대), 이필렬(방송통신대, 에너지대안센터) 외  
문의 : 02-745-3051 www.ecoarch.org

### 제6회 국제 아시아-태평양 건축심포지엄

하와이대학에서 주최하는 '제6회 아시아-태평양 건축심포지엄'이 오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호놀룰루 외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Asian Mega-projects'를 주제로 열리며, 오늘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집중되는 열려 쟁점들을 시기 적절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는 공공공간의 역할, 경제성장애 따른 새로운 공간유형, 사회·경제 경영, 친환경 도시계획, 운송 및 기간시설, 기획/디자인프로세스, 역사적 보존, 그리고 2010년 상하이엑스포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대규모 주요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상하이 정부관계자들, 개발자, 국제계획 및 건축가와 학자들이 발표자로 내정돼 있어 다양한 주제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조 : www.arch.hawaii.edu

### 다니엘 리베스키트 초청 강연회

현대산업개발(주)는 지난 2월 18일 현대산업개발 신사옥 아이파크타워 준공행사의 하나로 다니엘 리베스키트를 초청하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회는 건축과 문화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아이파크타워 프로젝트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아이파크타워를 설계한 리베스키트는 문화와 전통의 결합으로 도시가 형성된다는 자신의 건축

사상 및 도시와 미래의 연계성을 자신의 프로젝트와 함께 소개하였다. 그는 건축에서 전통이 공간과 시간의 방향을 제시, 가능성과 지식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하고, 건물은 인간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며, 의사소통한다고 하였다.

또 그는 건축과 삶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과학과 예술분야의 관심으로 다양한 간접 체험이 가능하고, 문화적 활동이 건축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음악과 그림은 현대건축을 디자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며, 뛰어난 시각 및 기술력으로 인간의 가치를 확인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건축은 새로운 생태학적 건축과 대중의 욕망을 반영하여 도시에 디자인되어야 하며,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의 : 현대산업개발 02-2008-9192



다니엘 리베스키트

### 영국 도시 재생 세미나

주한 영국대사관은 2005년 3월 29일 '도시재생과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탁월성과 혁신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선도적인 영국 건축과 도시 계획사업을 소개한다. 영국 측 초청 연설자들은 이 세미나에서 '도시 재생을 통한 더 나은 생활환경'과 '도시 계획에 부수되는 환경적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연설하며, 건축사들과 도시 계획자들이 직면한 난제들을 탐색하고 환경과 설계의 면에서 더 나은 도시 생활을 누릴 시민들의 권리와

요구를 참작하여 미래에도 지속 개발 가능한 도시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도시에 그 정체성을 각인시키려고 노력하는 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혁신적인 설계를 모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일시 : 2005년 3월 29일(화)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

- 시간 : 오후 1시~6시

- 연설자

• Will Alsop, OBE (윌 알삽) : Chairman, Architecture Foundation / Principal, Alsop Architects Ltd.

• Alison Nimmo, CBE (알리슨 니모) : Head, Planning and Regeneration, London 2012

• Peter Braithwaite (피터 브레스웨이트) : Director, Ove ARUP Group

문의 : 영국대사관

www.uk.or.kr/architecture / ppa@uk.or.kr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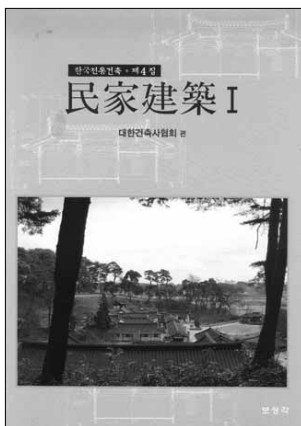
### 民家建築 I

#### 한국전통건축 제4집

이 책은 한국적 전통을 살려내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건축을 알려야겠다는 대한건축사협회의 관점에서 발간된 자료집으로, 처음 1982년에 연구 활동이 시작되어 1992년 그 첫 번째 결과물인 「관아건축」이, 1994년에는 「궁궐건축」, 1996년에는 「누정건축」이 발간되었고, 이후속편으로 「민가건축 I」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전통건축을 공부하거나 설계를 위한 자료집이나 자료상 사진이 미흡한 건물에 대해서는 연구위원과 전담연구원이 현지를 답사, 촬영도 하고 도면상의 오류도 현장에서 확인하여 수정하기도 하였다. 또 캐드도면이 아닌 것은 전산작업을 하여 도면을 새로 만들기도 하는 등의 노고를 아끼지 않아 지면 지면마다 신뢰가 간다.

이 책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의 건물 26가옥을 수록되었으며, 뒤 이어 발간될 「민가건축 II」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 제주도의 24가옥이 수록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 / 304쪽 / 30,000원 / 보성각 발행  
02-924-6171

### 건축의 구조

이책은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로마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구조를 연구, 실천하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론과 실무를 피력하고 있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Salvadori교수의 『Structure Architecture』를 번역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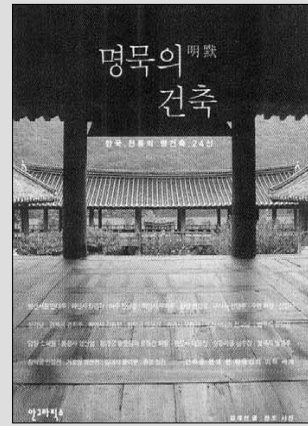
특히 Salvadori교수는 구조에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발표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구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기술된 이 책은 구조를 전공으로 하지 않는 건축대학 학생이나 실무를 하는 건축사와 디자이너에게는 창의력을 북돋아 줄 산지식이 될 것이며, 구조전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구조문제에 대한 올바른 길잡이가 될 것이다.



김용부 · 윤일주 역 / 520쪽 / 20,000원 / 기문당 발행  
02-2295-6171

### 명목(明默)의 건축

이 책은 '전통건축은 당대의 철학과 종교, 건축과 실내디자인이 한데 어우러진 결정체'라고 생각하는 저자의 "전통 건축의 의미를 되짚는 일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과 시대정신, 종교와 학문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지적 통찰력을 고양시키는 일"이라는 주장에 충실한 결과물이다.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시작하여 수원화성, 도산서당과 전교당, 양동마을 심수정, 종묘장전 등 우리 전통건축의 24채의 옛집들을 소개하며 그야말로 "예술에 대한 지적 통찰력을 고양"시키며, 우리 건축을 보는 방법과 눈을 가지게 한다.



김개천 지음 / 265쪽 / 15,000원 / 안그래픽스 발행  
080-763-2320

## 빛을 따라 건축적 산책을 떠나다

이 책은 프랑스 건축가인 앙리 시리아니(Henri Ciriani)가 설계한 '고대 아를르 박물관'과 '1차 세계대전 추념관'을 소개하며 독자와 함께 그 안에 담긴 건축적 의미를 음미하며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씌어졌다.

시나리오가 있는 건축, 즉 건축적 산책 개념을 특권화된 시점들의 연속으로 해석하며 건축의 이야기성을 중시하는 시리아니에게 박물관 건축은 외부 진입방향에서 산책의 종착점까지 방문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공간 순서대로 거닐면서 행로를 따른 공간 독해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유형이었다. 이러한 시리아니와 함께 고대 아를르 박물관과 1차 세계대전 추념관으로 가벼운 산책을 떠나본다.



이관석 지음 / 174쪽/18,000원 / 시공문화사 발행  
02-3147-1212

## 내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사가 겪는 일상사들과 건축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내용들을 2001년 10월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사이트 'Daum의 칼럼'에 "전영철의 참 건축론"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들을 엮은 책.

기성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건축 현실의 비판과 반성과 안타까움들을 필자 혼자만이 아닌 많은 건축인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공감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에 작은 힘이 되고 그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건축 분야에 관한 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엮었다고 한다.



전영철 지음 / 312쪽 / 10,000원 / 이나우수 풀 발행  
02-2231-9050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9-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6-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9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체천지역건축사회/(043)643-36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아산건축사회/(041)532-9200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6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 · 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철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